

## 소셜네트워크위치가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데이터분석 수강생을 중심으로

김 창 식\*·정 태 응\*\*

###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Position on Learning Performance: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Studying Tourism Data Analytics*

Kim Chang-Sik·Jung, Tae-Woo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betweenness centrality on tertius gaudens orientation, relationship commitment, and individual learning performance within the university environment. The betweenness centrality explored the antecedent factor of tertius gaudens orientation. The relationship commitment explored the consequence factor of tertius gaudens orientation, and the learning performance explored the consequence factor of the relationship commitment. This survey was carried out by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obtained from 74 respondents who have been studying tourism data analytics at one of the leading universities, in Seoul, Korea. In order to validate the research model, social network analysis tool, UCINET 6.689,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ol, SmartPLS 3.3.2, were used. The empirical result showed that all antecedent factors (betweenness centrality position, tertius gaudens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commitment) of the learning performance were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Then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Social Capital, Betweenness Centrality Position, Tertius Gaudens Orientation Relationship Commitment, Learning Performance

## I. 서론

사회에서 세대(X, Y, Z)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X, Y, Z세대 간에는 차별화된 다양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X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Y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Z세

대는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출생한 그룹을 의미한다[1, 2]. 대학에서는 특히 Z세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Z세대는 인터넷 세계에서 성장한 첫 번째 세대로서 정보와 세계관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형성되었다[3, 4].

본 연구에서는 Z세대 대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인 학업성과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 세종대 박사과정·배화여자대학교 글로벌관광과 조교수

\*\*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외래강사(교신저자)

두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 구성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 Z세대들이 대학생이 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의 학업성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5-11]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Z세대 대학생들의 학업성파와 관련된 선행연구[12]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현 시점에 Z세대 대학생들의 학업성파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특히 학업성파를 소셜네트워크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관광데이터분석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파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인 대학생들의 학업성파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중요한 구성개념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구성개념을 토대로 연구모델을 도출하고, 이들 구성개념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한다. 셋째, 구조적관계 검증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문헌연구

### 2.1 사회적자본과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소셜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기회(opportunity)와 제약(constraint)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원의 성과 또는 행태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14].

소셜네트워크 위치(social network position)를 통해 만들어 지는 사회적 자본은 성과를 동인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4, 15]. 소셜네트워크에서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집단간, 집단과 집단 간

에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 축적된 자원의 집합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 한다[16, 17].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규범을 창출하기도 하고[18],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한 결속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좌우된다[19]. 사회적 자본은 관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며, 구조적 관점(structural dimension), 관계적 관점(relational dimension), 인지적 관점(cognitive dimension)으로 구분한다[15, 20].

소셜네트워크 관점에서 '누가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사람인가?'를 중심성(centrality)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성은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로 나눌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제하거나 중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 중심성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은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다. 이는 테르티우스 개념으로 이해가능하다. 테르티우스 행동에 의하면 인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며, 인맥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거나 혹은 통제가 가능하다. 테르티우스 개념은 테르티우스용겐스 성향,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으로 구분가능하다[21-26].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테르티우스용겐스 성향이 높은 사람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24]. 한편,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테르티우스용겐스 성향과는 달리 서로 연결되지 못한 두 사람 사이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의 위치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활동 성향이다[16]. 또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제 삼자, 즉 두 사람 간에 위치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24].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간에 연결되지 않은 두 사람은 서로 모르거나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제 삼자에 의해 정보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27]. 따라서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네트워크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점을 얻는다[16, 24].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혁신성과[28], 지식이전[29-31], 업무성과[23, 30-32], 지식공유[33]와 같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Z세대 대학생들의 학업성과에 초점을 두었으며, 매개중심성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 2.2 학업성과의 선행요인

학업성과(learning performance)는 국내 고등교육에서 연구가 활발하며, 그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평가가 성과중심으로 변화되어 학업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6, 12]. 학업성과관 수업을 통해 지식습득 및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34].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할 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요소가 많으면,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자들보다 더 열심히 학습하여 더 좋은 학업성과를 나타낸다[35]. 학업성과를 높여주는 동기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구성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계몰입 (relationship commitment),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tertius gaudens orientation), 매개중심성위치 (betweenness centrality)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개념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학업성과의 선행요인들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업성과의 선행요인인 관계몰입은 장기적으로 관계유지를 하기위한 필요조건으로, 관계유지를 위한 결과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상호관계작용에 따른 결과물로도 여겨진다[36-38]. Moorman et al.[39]과 Geyskens et al.[40]는 관계몰입을 가치 있는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정의한다. 관계몰입은 관계마케팅의 핵심개념으로 이를 개발,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구성개념

들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관계몰입은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관계몰입은 감정적 유대감과 함께 관계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한다[40, 41].

본 연구에서 관계몰입의 선행요인인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24, 30]이 높은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거나 친분이 적은 경우 중간에 위치하여 정보나 관계를 조작할 수 있다[27]. 또한 구성원간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16]. 즉,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네트워크 안에서 중개자 위치를 이용하여 정보 접근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획득 가능하다. 한편 본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조작도 가능하며, 유연성 확보도 가능하다[14, 24]. 이와 같은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이 높은 사람은 서로간의 관계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관계몰입 또한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관계몰입 능력이 뛰어난 구성원은 정보탐색과 활용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창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관계몰입에, 관계몰입은 학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Z세대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에서 매개중심성 위치는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Z세대 학생의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관계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Z세대 학생의 관계몰입은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관광데이터분석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관계몰입을 선정하였다. 또한 관계몰입의 선행요인으로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요인을 도출하고,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의 선행요인으로 매개중심성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델을 검증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서 경로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검증을 위해서 Anderson and Gerbing[42]의 2단계 접근법을 기반으로 PLS-SEM 분석 툴인 SmartPLS 3.2.8[43]를 사용하였다. PLS-SEM을 선택한 이유는 샘플의 수가 적은 경우 또는 약간의 선행 지식을 기반으로 잠재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44, 45].

##### 3.2.1 측정도구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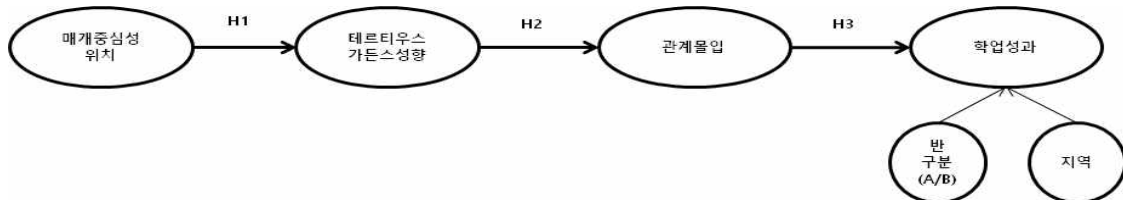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문항<부록 참조>을 연구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소셜네트워크 변수인 매개중심성 위치 요인은 친

밀도 네트워크에서 측정하였다. 매개중심성 위치 변수는 학생들 간의 매개중심성 위치를 나타내는데, 소셜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추출되었다[14].

소셜네트워크 변수 측정을 위하여 관광데이터분석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다.

설문에서는 “귀하는 ( )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22, 23, 46, 47]. 이러한 질문을 통해 측정된 변수를 소셜네트워크 분석 툴을 활용하여 매개중심성 요인 값이 추출되는데, 매개중심성 값의 추출을 위해서는 우선 응답항목의 값을 Excel에 코딩해야한다. 이후 소셜네트워크 분석 툴인 UCINET 6의 Transform/ Dichotomize 기능을 사용하여 (분류기준 > 3 이면 1, 분류기준 <= 3 이면 0)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즉 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로, 관계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0”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변환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UCINET 6 (Network/Centrality/ Multiple Measures)을 활용하여 매개중심성 위치 값을 산출하였다[15].

심리측정 변수인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및 관계몰입 요인은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위하여 복수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서로 친밀하지 않은 학우들 사이에 위치하여 이점을 얻으려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선행연구들[14, 24, 27, 32]을 참조하여 10개 항목,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계몰입은 학우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



<그림 1> 연구모델

램의 정도로 정의하고, 관계몰입 선행연구[38, 41, 48]를 참조하여 5개 항목으로,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는 관광데이터분석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적으로 정의하며 선행연구[12]를 참조하여 학기말 성적을 적용하였다. 또한, 반 구분 및 지역구분은 통제변수로서 투입하였다.

### 3.2.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의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관광데이터분석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74부의 설문을 배포한 후 회수 하였다.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응답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응답 중 이상치가 확인되면, 응답자에게 추가적인 확인을 하였으며, 총 74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은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이다. 여성이 76명(100%) 이었으며, 나이는 19세 이하가 5명(6.8%), 20세 이상이 69명(93.2%)이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이 29명(39.2%), 경기도 등이 45명(60.8%)이었다. 성적은 A가 20명(27%), B가 36명(48.6%), C이하가 18(24.3%)로 나타났다. 반 구분은 A반 38명(51.4%), B반 36명(48.6%)로 확인되었다.

## IV. 분석결과

### 4.1 타당성과 신뢰성

연구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관측변수의 요인적재 값 기준은 0.6[49], 복합신뢰도 기준은 0.7[50]로 하였고, 평균분산추출 기준은 0.5, 크론바흐알파 값의 기준은 0.7로 하였다[51].

<표 1>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결과

변수	항목	요인 적재값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크론 바흐 알파
매개중심성 위치(BCP)	BCP1	1.000	1.000	1.000	1.000
테르티우스 가든스성향 (TGO)	TGO1	0.676	0.924	0.637	0.904
	TGO2	0.875			
	TGO3	0.857			
	TGO4	0.871			
	TGO5	0.775			
	TGO8	0.763			
	TGO10	0.747			
관계몰입 (REC)	REC1	0.851	0.948	0.787	0.932
	REC2	0.840			
	REC3	0.923			
	REC4	0.911			
	REC5	0.906			
학업성취(LEP)	LEP1	1.000	1.000	1.000	1.000
반 구분(BGU)	BGU1	1.000	1.000	1.000	1.000
지역(REG)	REG1	1.000	1.000	1.000	1.000

다음 <표 1>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항목 중 TGO6, TGO7, TGO9를 삭제한 후 요인적재 값은 모두 0.6 기준을 충족하였고, 복합신뢰도와 크론바흐 알파 값도 모두 0.7기준을 충족하였다. 평균분산추출 값도 모두 0.5 기준을 상회하였다. 판별타당성은 Fornell and Larcker[51] 및 Heterotrait Monotrait Ratio(HTMT)[52-54] 기준을 적용하였다. Fornell and Larcker[51]의 기준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보다 상관관계 값이 작은지를 확인 하였다.

다음 <표 2>의 Fornell and Larcker Criterion[51]에서 보듯이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에 모든 상관관계 수 값이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 판별타당성 분석에서 권고되는 HTMT[52-54] 기준(0.85)으로도 확인하였다. 다음 <표 2>의 HTMT 값에서 보듯이 모든 값이 0.85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4.2 구조모델 및 가설검증

본 연구는 PLS-SEM기법을 적용하여 가설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2>에서 보듯이 종속변수인 학업성과의 설명력은 5.9%이며, 관계몰입의 설명력은 41.7%,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의 설명력은 17.2%이다. 본 연구모델에서는 예측관련성[50]을 검증하기 위해서, Stone-Geisser's Q2 값[55, 56]을 blindfolding 절차에 따라 측정된 결과[53], 학업성과는 0.019, 관계몰입은 0.302,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0.094이다. 이는 예측관련성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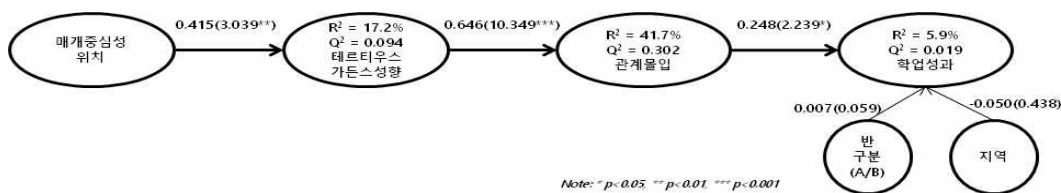
다음 <표 3>은 가설 검증결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 구분 및 지역구분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가설 H1, H2, H3은 모두 채택되었다. 매개중심성 위치 요인은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요인에( $\beta = 0.415$ ,  $t\text{-value} = 3.039$ ),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요인은 관계몰입 요인에( $\beta = 0.646$ ,

<표 2>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BCP	TGO	REC	LEP	BGU	REG
Fornell & Larcker Criterion						
매개중심성 위치(BCP)	1.000*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TGO)	0.415	0.798*				
관계몰입(REC)	0.394	0.646	0.887*			
학업성과(LEP)	0.226	0.255	0.239	1.000*		
반구분(BGU)	-0.091	-0.102	-0.085	-0.015	1.000*	
지역(REG)	0.168	0.053	0.173	-0.007	0.006	1.000*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매개중심성 위치(BCP)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TGO)	0.435					
관계몰입(REC)	0.408	0.681				
학업성과(LEP)	0.226	0.260	0.247			
반 구분(BGU)	0.091	0.127	0.088	0.015		
지역(REG)	0.168	0.102	0.182	0.007	0.006	

주 : \* 대각선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을 의미. 대각선 아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t\text{-value} = 10.349$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계몰입 요인은 학업성과 요인( $\beta = 0.248$ ,  $t\text{-value} = 2.239$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2> 연구결과

<표 3>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결과
H1(+)	매개중심성위치 → 테르티우스가든스성향	0.415	0.136	3.039**	채택
H2(+)	테르티우스가든스성향 → 관계몰입	0.646	0.062	10.349***	채택
H3(+)	관계몰입 → 학업성과	0.248	0.111	2.239*	채택

주: 검증기준 : \*  $p < 0.05$  ( $t > 1.96$ ), \*\*  $p < 0.01$  ( $t > 2.58$ ), \*\*\*  $p < 0.001$  ( $t > 3.30$ )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관계에서 생성되는 매개중심성 효과,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관계몰입과 학업성과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했다. 분석결과 학업성과에 관계몰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은 관계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매개중심성 위치는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Z세대의 학업성과와 소셜네트워크 관계 간에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실제 Z세대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의 교직원들에게는 Z세대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Z세대의 사회적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매개중심성 효과와 학업성과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Z세대 학생들의 사회적관계 형성에 학교의 관계자들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Z세대의 매개중심성,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 및 관계몰입이 학업성과에 유의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의 관계자들이 Z세대 학생들의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과 관계몰입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들은 모두 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Z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을 선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일반화의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세대, 지역, 학년, 성별을 대상을 확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더 재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 변수는 매개중심성 위치 요인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구조적공백, 밀도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변수를 추가 및 대체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 I. 설문문항

변수	설문	참고문헌
테르티우스가든스성향	나는 소수의 학우들과 친목관계를 갖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14,24,27,30]
	나는 지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편이다	
	나는 다양한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학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편이다	
	나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모르는) 학우나 그룹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서로 모르는 학우나 그룹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	
	나는 자발적으로 서로 모르는 학우나 그룹을 소개시켜 주는 편은 아니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이나 학과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변학우들을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형성보다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학우들과 교류하는 편이다	
관계몰입	나는 학우들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38,41,48]
	나는 학우들에게 감정적인 애착감을 느낀다	
	나는 학우들과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다	
	나는 학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업성과	나는 학우들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과목성적	

II. 소셜네트워크 설문

이름	1) 귀하는 ( )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깝다고(친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멀게 느낀다 <—> 매우 가깝게 느낀다				
AAA	(1)	(2)	(3)	(4)	(5)
...	(1)	(2)	(3)	(4)	(5)
ZZZ	(1)	(2)	(3)	(4)	(5)

참고문헌

- [1] Cecily, L. Betz, "Generations X, Y, and Z, Editorial,"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Vol.44, 2019, pp.A7-A8.
- [2] Pew Research Center, "Early Benchmarks Show 'Post-Millennials' on Track to Be Most Diverse, Best-Educated Generation Yet," Retrieved on December Vol.26, 2018 from: <http://www.pewsocialtrends.org/2018/11/15/early-benchmarks-show-postmillennials-on-track-to-be-most-diverse-best-educated-generation-yet/>.
- [3] Adamson, M. A., Chen, H., Kackley, R., and Micheal, A., "For the love of the game: game-versus lecture-based learning with Generation z patien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Vol.56, NO.2, 2017, pp.29-36.
- [4] Prensky, M.,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Retrieved on December 26, 2018 from Vol.9, No.5, 2001, pp.1-6, <http://libproxy.usc.edu/login?url=https://search-proquest-com.libproxy2.usc.edu/docview/214629645?accountid=14749>.
- [5] 김현진·고장완·김명숙, "대학생의 가치유형에 따른 학습경험과 학습성파 분석," *한국교육*, 제39권, 제2호, 2012, pp.109-127.
- [6] 고장완·박수미·유현숙, "대학생의 학습성파와 대학특성 및 학습과정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 제41권, 제1호, 2014, pp.167-195.
- [7] 장은정, "SNS 토론에서 학습자의 사고양식 및 셀프리더십과 학습성파의 관계 분석," *학습과학연구*, 2015, 제9권, 제3호, pp.106-129.
- [8] 박성열·남민우·임중훈, "사이버대학생과 컨소시엄사이버대학생의 이러닝 실재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4권, 제1호, 2012, pp.109-129.
- [9] 이정민·윤석인,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성파에 대한 학습자 동기 교수실재감 학습몰입의 예측력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011, pp.141-166.
- [10] 김옥현·최은주, "간호대학생의 KCUE-Q1 (Korean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Questionnaire) 에 따른 비인지적 학습성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2014, pp.862-872.
- [11] 배수현·박정숙,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성파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 *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3, pp.203-214.
- [12] 김태경·김창식·임은순, "대학생들의 학업성파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을 전공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6호, 2016, pp.271-283.
- [13] Borgatti, S. P., Everett, M. G., & Johnson, J. C., *Analyzing social networks*. Sage, 2018.
- [14] 광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제2판, 청람, March 3, 2017, pp.1-690. (ISBN 978-89-5972-558-8).
- [15] 김창식·광기영, "조직구성원의 네트워크 위치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제16권, 제2호, 2015, pp.67-89.
- [16] Burt, R. S.,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92.
- [17] Bourdieu, P. and Wacquant, L. J. D.,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18]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0.
- [19] Granovetter, M. S.,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No.6, 1973, pp.1360-1380.
- [20] Nahapiet, J. and Ghoshal, S.,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1998, pp.242-266.
- [21] 광기영·이정민,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테르티우스 용겐스 성향이 개인의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1권, 제4호, 2012, pp.1253-1284.
- [22] 김효준·광기영, "조직 내 IT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소셜네트워크 관점," *정보시스템연구*, 제20권, 제1호, 2011, pp.147-169.
- [23] 김창식·광기영·김학준, "리조트 고객서비스센터 조직구성원의 소셜네트워크 위치가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5호, 2015, pp.113-127.
- [24] Lammers, I., Man, A. P., and Jelinek, M., "Inside the Tertius Gaudens: The Case of ASML,"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May 7th, 2009.
- [25] Salvétat, D., Géraudel, M., "The tertius roles in a coepetitive context: The case of the European aeronaut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ctor,"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30, No.6, 2012, pp.603-614.
- [26] Pathak, S. D., WU, Z., and Johnston, D., "Toward a structural view of co-opetition in supply network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32, No.5, 2014, pp.254-267.
- [27] Simmel, G.,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Trans, By Wolff, K. H., and Glencoe, I., Free Press, 1950.
- [28] 강소라·문윤지, "조직의 사회네트워크 특성이 흡수역량과 혁신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10호, 2010, pp.3761-3771.
- [29] Kang, M., Kim, Y. G., and Bock, G. W., "Identifying Difference Antecedents for Closed vs. Open Knowledge Transfer,"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 36, No. 5, 2010, pp.585-602.
- [30] 김창식·광기영,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조직구성원의 지식이전 선행요인: Triandis 모델 및 사회적 자본 이론 관점,"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1호, 2014, pp.157-167.
- [31] 김창식·김태경·광기영, "사회적 네트워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8, pp.133-141.
- [32] 김창식·광기영, "개인의 네트워크 전략 성향이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 테르티우스용겐스와 테르티우스가든스 성향의 역할,"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3호, 2015b, pp.339-359.
- [33] 김재환·김창식·광기영, "학업 전문성 네트워크 위치가 지식공유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제28권, 제8호, 2016, pp.167-180.
- [34] 하병환·조현숙·김영문, "이러닝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파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3호, 2009, pp.69-92.
- [35] 김미량, "웹활용 수업 확산의 장애요인 탐색을 위한 사례연구: 학습자의 지각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3호, 1998, pp.55-73.

- [36] Chang, H. H., and WANG, H.-W., "The moderating effect of customer perceived value on online shopping behaviour," *Online Information Review*, Vol.35, No.3, 2011, pp.333-359.
- [37] Anderson, E. and Weitz, B. A., "Determinants of continuity in conventional industrial channel dyads". *Marketing Science* 8 (Fall), 1989, pp. 310-323.
- [38] Hennig-Thurau, T., Gwinner, K. P., and Gremler, D. D., "Understanding relationship marketing outcomes: an integration of relational benefits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Vol.4 No.3, 2002, pp.230-247.
- [39] Moorman, C., Zaltman, G., and Deshpande, R.,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ket research: The dynamics of trust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9, No.3, 1992, pp.314-328.
- [40] Geyskens, I., Steenkamp, J. and Scheer, L. K., "The effects of trust and interdependence on relationship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Vol.13 No.4, 1996, pp.303-317.
- [41] 천혜광·이상호, "고객의 서비스가치와 관계가치가 신뢰, 고객만족, 관계몰입, 고객충성도, 교체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17, pp.25-45.
- [42]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1988, pp.411-423.
- [43] Ringle, C. M., Wende, S., and Becker, J. -M., "SmartPLS 3.", Boenningstedt: SmartPLS GmbH, <http://www.smartpls.com>, 2015.
- [44] Hair Jr, J. F., Hult, G. T. M., Ringle, C., & Sarstedt, M.,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Sage publications, 2016.
- [45] Ham, S., Lee, S., Yoon, H., & Kim, C., "Linking creating shared value to customer behaviors in the food service contex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43, 2020, pp.199-208.
- [46] Bruque, S., Moyano, J. and Eisenberg, J., "Individual Adaptation to IT-Induced Change: The Role of Social Network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5, No.3, 2008, pp.177-206.
- [47] Kwahk, K. Y., "The Impacts of Social Networks on Individual Adaptation to Technochange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21, No.1, 2011, pp.29-47.
- [48] 이학식·임지훈, "CRM 이 고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의 지각된 관계적 편익과 관계몰입의 매개적 역할," *경영학연구*, 제32권, 제5호, 2003, pp.1317-1347.
- [49] Bagozzi, R. P., and Yi, Y., "On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6, No.1, 1988, pp.74-94.
- [50] Chin, W. W.,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ed.),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J, 1998, pp.295-336.
- [51] Fornell, C., and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1981, pp.39-50.
- [52] Gefen, D., and Straub, D., "A practical guide to factorial validity using PLS-Graph: Tutorial and annotated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6, No.1, 2005, pp.91-109.
- [53] Hair Jr, J. F., Hult, G. T. M., Ringle, C., and Sarstedt, M.,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Sage publications, 2016.
- [54] Henseler, J., Ringle, C. M., and Sarstedt, M.,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43, 2015, pp.115-135.
- [55] Geisser, S., "A predictive approach to the random effect model," Biometrika, Vol.61, No.1, 1974, pp.101-107.
- [56] Stone, M., "Cross-validation and multinomial prediction," Biometrika, Vol.61, No.3, 1974, pp.509-515.

■ 저자소개 ■



김 창 식  
Kim, Chang-Sik

2018년 3월~현재  
배화여자대학교 글로벌관광과  
조교수

2015년 3월~ 2018년 2월  
국민대 BIT전문대학원 BK21  
플러스 사업팀 계약교수

2013년 8월  
국민대 BIT전문대학원  
비즈니스IT전공(경영정보학박사)

2002년 2월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정보학과(경영학석사)

관심분야 : 호텔/외식/관광/MICE 경영, 데이터  
애널리틱스, 텍스트 마이닝,  
소셜네트워크 분석 및 응용

E-mail : solo21solo@naver.com



정 태 응  
Taewoong Jeong

2019년 9월~현재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외래강사

속초리마다호텔 경영지원실장

2006년 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학박사

1995년 8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 리조트/호텔경영

E-mail : nadia68@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20년 5월 27일  
수 정 일 : 2020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3일